

종합·해설

‘대세론’ 문재인 ‘빨간불’ 켜지나

전북·인천서도 1위 불구 과반득표 실패 누적 득표 46.2%...결선투표 가능성 커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인천지역 순회경선에서 문재인 후보가 6연승을 하며 대세론 분위기를 이어갔다.

하지만, 누적 득표율이 50% 아래로 떨어지면서 결선투표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때문에 6일 치러지는 광주·전남에서의 승패가 이번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문 후보는 2일 인천 삼산월드체육관에서 열린 지역 순회경선에서 선거인단 유효투표수 1만1834표 중 5928표(50.1%)를 얻어 1위에 올랐다.

이어 손학규 후보가 3143표(26.6%)를 얻어 2위를 차지했다. 김두관(1976표·16.7%), 정세균(787표·6.7%) 후보가 3~4위로 뒤를 쫓았다.

전날 전주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전북 순회경선에서 문 후보는 1만6350표(37.5%)를 얻었다. 이어 정 후보(1

만1556표·26.5%), 손 후보(1만193표·24.4%), 김 후보(5454표·12.5%) 순이었다.

문 후보는 6곳의 경선 결과를 합산한 누적 득표에서도 5만221표(46.2%)로 1위를 차지했다. 하지만, 과반 획득에 실패해 향후 1, 2위 후보 간 결선투표 실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누적 기준으로 손 후보가 2만8059표(25.8%)로 2위를 지켰다. 김 후보(1만6036표·14.7%), 정 후보(1만4505표·13.3%) 순이다.

이처럼 문 후보가 지역 순회경선 1위를 질주하고 있지만 과반 득표율이 무너지면서 대선가도에 빨간불이 켜졌다.

6연승으로 대세론을 유지하고 있지만 결선투표 가능성이 커져 역전패의 우려를 안게 된 것이다.

특히 민주당의 안방인 호남에서 30%대의 지지율을 기록함에 따라 호



남 동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향후 대선 전략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문 후보는 전날 전북 경선에서 승리했지만 처음으로 누적득표율이 50% 이하로 떨어졌다. 전북지역 득표율이 37.5%에 그치면서 누적득표율 45.7%를 기록한 것이다.

문제는 결선투표를 하는 상황을 넘어 민주당의 상징인 호남이 문 후보와 일정 정도 거리를 유지할 경우 향후 대선행보의 결말론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우선 호남이 문 후보의 확실한 우군이 되지 못할 경우 결선투표에서 승리를 장담하기 어렵다.

또 민주당 후보가 된다 하더라도 민주당의 분산인 광주·전남의 전폭적 지지를 받지 못한다는 것은 정책성 측면에서 불완전한 상황으로 몰릴 수 있을 뿐 아니라 이는 수도권 호남 민 결집을 약화하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

더욱이 안철수 교수와 단일화에서도 승리를 담보하기 힘든 상황에 몰릴 수도 있다. 여기에 자칫 광주·전남에서 1위를 다른 후보에 내줄 경우는 더욱 치명적일 수도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광주·전남지역 경선은 이번 당 후보 경선을 넘어 향후 아련 후보단일화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때문에 후보마다 광주·전남지역에 올인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중행기자 jkpark@kwangju.co.kr /이중행기자 galee@kwangju.co.kr



만났지만...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가 2일 청와대에서 열린 단독 오찬회동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이명박-박근혜 청와대 회동

태풍 피해·성폭력 예방 대책 논의

이명박 대통령과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가 2일 청와대에서 회동했다. 이 대통령과 박 후보는 100분 동안 진행된 오찬을 겸한 회동에서 태풍 피해 대책과 성폭력 예방, 그리고 민생경제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

박 후보는 정부의 태풍 피해 대책과 관련, “아무 도움도 받을 수 없는 사각지대 사람들이 많다. 보완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사각지대의 농어민이 희망을 갖고 재기할 수 있도록 챙기겠다”

고 답했다.

박 후보는 또 “민생경제가 위기상황 직면한 만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대학생 만값등록금과 0~5세 영유아 양육수당 확대에 정부가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학생들의 어려움과 여성들의 도움이 절실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잇따라 발생한 성폭력 문제도 논의됐다. 박 후보가 앞으로 100일간 범국민 특별안전 확립기간으로 정하

고 민관 합동으로 대책을 수립할 것을 제안하자 이 대통령은 “민관이 합동으로 노력해야 한다”며 필요성에 공감했다.

두 사람의 독대는 지난해 12월22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망에 따라 여야 교섭단체 대표 회동 직후 이뤄진 단독 면담 이후 8개월여 만에 처음이다. 이번 만남은 박 후보 측이 대선 후보 선출을 이은 인사 차원에서 지난주 먼저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합당 김현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특정 정당 후보의 정책과 공약사항을 들어주는 모양새로 대화가 오갔다”며 “이번 회동은 명백히 선거 중립을 훼손한 자리”라고 주장했다.

이중행기자 jkpark@kwangju.co.kr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대권 전초전’ 광주·전남표에 달렸다

민주 대선주자들 편지·공보물·보도자료 통해 지지 호소

민주당의 광주·전남지역 순회 경선을 앞두고 대선 예비 주자들은 호남에 대한 진정성을 담은 메시지 전달에 나서며 등막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우선 문재인 후보는 2일 ‘총장로의 김 선생님께’라는 편지 형식의 글을 통해 광주·전남 지역민에 지지를 호소했다.

문 후보는 광주 민심에 대해 “역사의 고비마다 방향을 제시하고 슬한 희생과 고생을 감수하고 맨 먼저 뛰박 뛰박 걸었다”고 정의하며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만들어 낸 ‘광주 정신’을 문재인이 어깨 위에 놓아 달라”고 밝혔다.

문 후보는 이어 “아직 김대중, 노무현을 만났을 때처럼 가슴이 뜨거

워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문재인이 걸어온 삶을 보고 진심을 발견한다면 마음을 결정해 달라”고 지지를 당부했다.

문 후보는 마지막으로 “광주 정신이 살아 숨 쉬는 정부를 만들겠다”며 “올해가 가기 전 총장으로 우체국 앞에서 뜨겁게 만남 날을 기대한다”며 광주·전남 민심과 함께 대선 승리를 이루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손학규 후보도 경선 공보물을 통해 막판 광주·전남지역 민심 공략에 나섰다. 손 후보는 공보물을 통해 “박으로든 새계적 경제 불황의 먹구름이, 안으로는 서민의 삶이 무너지고, 새누리당의 박근혜 후보는 대세론을 부르짖고 있다”며 “같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지만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한, 손학규가 있는 한 같은 있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손 후보는 이어 “변화와 안정을 원하는 중도층의 지지를 견인하는 등 지난 대선에서 잃어버린 600만 표를 찾아와 대선에서 승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생 경제를 살려 서민의 삶을 지켜내고 경제 민주화로 저녁이 있는 삶을 만들어 내겠다”며 “여성고 어르신 등 사회적 약자를 먼저 챙기고, 육아와 복지, 교육 혁신은 물론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겠다”고 준비된 후보로서의 비전을 제시했다.

김두관 후보도 경선 보도자료를 통해 “호남이 버리면 김두관은 설

자리가 없다”며 경선 초반의 어려움을 털어놓고 “꺼져가는 정권 교체의 횃불을 밝혀달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김 후보는 이어 “1987년 대통령 선거 당시, 밤마다 깃게 나가는 김대중 후보의 선거벽보를 매일 새벽, 불이고 또 불었다”며 “지역주의에 맞서고, 역사의 부름에 당당히 응하고, 끊임없이 도전한 김두관을 지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 후보는 특히, “광주와 호남의 선택으로 참여정부가 탄생했으나 돌아온 것은 소외와 배제였다”며 “다시는 박신의 역사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사실상 문재인 후보에 직격탄을 날렸다.

이중행기자 tuim@kwangju.co.kr

광주·전남 교수 등 518명
“김두관 지지”

광주·전남지역 교수와 법조인, 시민단체 관계자 등 전문가 518명은 2일 “김두관 후보는 김대중·노무현 정권의 진정한 계승자로서 99%의 서민을 위하고 지역패권주의를 극복해 국민통합과 호남 연정을 기할 수 있는 유일한 후보”라며 김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이들은 이날 ‘민주당 해신을 바라는 광주 전남 시·도민 연대’를 결성하고 “기존 정치권의 불신에 따른 안철수 현상을 극복하고 박근혜를 이끌 수 있는 민주당의 후보가 누구인지 철저한 검증에 해야 한다”며 “안 교수와 함께 국민의 지지를 이끌어내고 민주·개혁 진영의 승리를 가져올 수 있는 김두관 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김 후보는 호남에 깊은 애정을 갖고 호남을 배신하지 않을 후보”라며 “김 후보는 호남을 제 일의 정치적 파트너로 삼겠다고 천명한 적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중행기자 galee@kwangju.co.kr

19대 첫 정기국회 오늘 개원 여야 정책대결 아닌 대선 각축장 전망

19대 첫 정기국회가 3일 개원한다. 지난달 4일 임시회 개최 후 개점영업 상태였던 국회가 한 달 만에 정상화 되는 셈이다.

하지만, 연달 대선을 앞두고 있는 만큼 이번 정기국회는 여야 간 정책 대결보다는 대선을 겨냥한 대선 각축장이 될 전망이다.

특히 내국동 관련 특검법안에서부터 이석기·김재연 통합진보당 의원의 자격심사 문제, 민간인 불법사찰 국정조사 등 곳곳이 지뢰밭이다.

여·야는 개회 전부터 이명박 대통령의 내국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 규명을 위한 특검법안 처리를 놓고 치열한 기싸움을 하고 있다.

여초 민주당이 특검법사 2명을 추천토록 여야가 합의했으나, 새누리당 법사위 간사인 권성동 의원이 위헌을 후보”라며 “김 후보는 호남을 제 일의 정치적 파트너로 삼겠다고 천명한 적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석기·김재연 통합진보당의 자

격심사안 처리도 넘기 힘든 산이다. 양당은 비례대표 부정경선 혐의를 받고 있는 두 의원에 대해 양당 15명씩 사명을 받아 자격심사안을 공동발의하기로 했다.

그러나 낱자를 명기하지 않은 채 ‘조속히’라는 모호한 표현을 삽입해 연내 처리는 사실상 물 건너간 것이 아니냐는 평가가 많다.

특히 민주당은 통합진보당, 제명 등이 전제되지 않으면 자격심사안을 발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양당은 13일 본회의에서 3명의 헌법재판관 선출을 처리하고 추석 직후인 다음달 5일부터 24일까지 국정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11월 22일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한다. 대선 공식선거운동이 11월 27일에 시작되는 점을 감안해 11월 29일까지 예산을 포함한 정기국회 운영일정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이중행기자 galee@kwangju.co.kr

부동산경매 특재 노려라!...NPL 투자 '열풍'

부실채권(NPL)

!! IMF에 대박났던 부실채권 다시 인기 !!
!! 근저당권 매입 후 경매건수 수천원~수억원 수익 !!

NPL이란? 금융기관이 돈을 빌려 줬지만 채무자가 3개월 이상 연체하는 대출채권을 의미하며, 무수익이 아닌 또는 부실채권이라 불린다.

NPL 투자란? 부동산 담보부 NPL(제1순위 저당권)을 싸게 매입하여 담보물건을 경매에 부쳐 배당받거나 직접 낙찰받아 수익을 올리는 방식이다.

NPL 투자의 매력은? 일반경매보다 낙찰이 우월하며, 실무지금이 적고 (높은 대출금), 양도세를 내지 않는 등 고수익 투자 상품이다.

● 제3기 NPL 최고전문가 과정 ●

개강 : 9월 11일(화)

* 강의시간 : 매주 화요일 / 오전반(10시), 야간반(7시)
* 교육기간 : 9월 11일~11월 6일 / 2개월과정
실전문자 교수진

이현준 교수

- * 한국NPL경제연구소장* 법무법인(비문길)자산관리팀장
- * 대외육선NPL실전문자교수
- * PMG(비문길)부동산소송(강남,종로)NPL전문교수
- * 한국공인중개사협회실무교육교수

특강 : 이영준교수(부실채권과과제이)가/저자, PMG(비문길)부동산소송NPL전문교수

◆ 무료 공개특강 ◆

내용 “NPL의진원리와수익구조”

일시 * 9월7일(금) : 저녁7시 / * 9월8일(토) : 오전10시

혜택 * 사전에약및당일접수시 * 수강료 10% 할인 / 교재 20% 할인

Dawa (주)다와옥션 ☎ (062)352-8589(대)
‘법원경매’의 집값이! www.dawauction.co.kr
납구 일산동 출고지역 1번 출구 / 신원동 4층 4구, 전담경매팀 4기어

이지공인중개사

임야,토지,전답

- ▶ 최순근이전민초창의 177,272㎡ (2352)㎡(7)㎡(5)천원
- ▶ 광주 서구 매월동 자연면적 46,596㎡(1,412)㎡(매) P/당 110만
- ▶ 나주시문명면장동36차선도로 450M 직할 15,638㎡(4,730P)매 P/당 202만
- ▶ 광안로 상가면적 월영리 임야 592천 P/P당 1만1천
- ▶ 광주 서구 매월동 공구상가 부근 8,433㎡(2,550P) 매 P/당 90만
- ▶ 서구 통영동 1113-6상업지역 최고 상권대 121P 면적 524P.보 1억822만 원수 1150만. 매 1895천원 지(비)지(상)총 지(비)지(상)총
- ▶ 장성 남면 2중주지역대지 660㎡(200P) P/당 50만 최고 주택, 공영주택
- ▶ 광주 광안구 신항동 자연부지 3,386㎡(분할 가능) 매 P/당 110만 최고 및 공영주택지적
- ▶ 함평읍 석성리 돌마리(해수욕장부근) 전답 4,242㎡(P/당 10만) 개발예정지역

기타 물건 다량보유
매매,교환(토지,상가,임야)

- ▶ 광주동구수기동 대지590P P/당400만 중상업상업 지역 위치중용
- ▶ 최순근이전민초창의 177,272㎡(2352)㎡(7)㎡(5)천원
- ▶ 나주시문명면장동36차선도로 450M 직할 15,638㎡(4,730P)매 P/당 202만
- ▶ 광주 서구 매월동 공구상가 부근 8,433㎡(2,550P) 매 P/당 90만
- ▶ 서구 통영동 1113-6상업지역 최고 상권대 121P 면적 524P.보 1억822만 원수 1150만. 매 1895천원 지(비)지(상)총 지(비)지(상)총
- ▶ 장성 남면 2중주지역대지 660㎡(200P) P/당 50만 최고 주택, 공영주택
- ▶ 광주 광안구 신항동 자연부지 3,386㎡(분할 가능) 매 P/당 110만 최고 및 공영주택지적
- ▶ 함평읍 석성리 돌마리(해수욕장부근) 전답 4,242㎡(P/당 10만) 개발예정지역

전화 : 062-955-7007
HP : 010-6460-2834

수익성 최상

① 키즈테마카페임대

- * 카페, 피터팬, 뷰티샵등
- * 면적 : 2,400㎡(725P)
- * 주차 500대
- * 보증금 3억/월1,800만

② 예식장 상설뷔페임대

돌잔치, 각종행사전문점

- * 면적 : 2,824㎡(854P)
- * 주차 500대
- * 보증금 4억/월2,200만

③ 도심형 생활주택

메디컬센터부지

- * 961㎡(290P)
- * 면적 145만
- * 150세대, 15층
- * 14억 투자 = 수익11억

④ 25억 = 월2,400만

- * 대지1,342㎡ 건물 5,700㎡
- * 보증금 4억 / 월 4,400만
- * 매매65억

010-3666-4646

랜드피아 공인중개사

상가 임대

각화동 홈플러스 인근 병원, 사무실 적합

- * 4~5층 각 130평
- * 6층 110평
- * 5천 / 월200만
- * 지하 140평 (임대가 및 조건조정가능)

수익성 부동산매매

랜드피아오피스텔 매매

- * 15평~29평
- * 9~12% 높은수익률

치평동 근린상가 매매

- * 매가29억~100억대
- 물건다량 보유
- 8%~10% 수익률

010-9731-8949
(치평동랜드피아 O/P 1층)

경매투자 NPL 물건 특수물건

1. 경매 배우면서 입찰받으실분!
특수물건/NPL물건만 전문 취급
교육비/입찰활동비 등 회비 550만원

2. 매수 입찰 대리
정확한 권리분석 → 최저낙찰
빠른 명도 → 최상의 대출
임대 → 매매까지

3. 경매물건에 투자 하실분!
제1순위 근저당으로 법적 보장
년 10~30% 최고의 수익률
단독/공동투자 가능

주 오천경매 투자 연구소
OC & A Investment Institute

H·P 010 3605 5000 TEL 062 525 5000
광주광역시 동구 수기동 23-2번지
E-mail : csg5000@hanmail.net

못 받은 돈

친절히 상담해 드립니다.

- 공증문서
- 대여금
- 법원판결문
- 운송료
- 각종채권
- 구상금
- 물품대금
- 공사대금

- 채무자 전국 재산조사 가능
- 채무자 신용조사
- 법인재산조사, 신용조사
- 법원 재판종인 사건 확인

의뢰시 수수료없음
(회수금에 대한 후불제도)
필요에 따라 법무비용은 채권자 부담

“타 신용정보사와 비교 탁월한 회수실적”
“전국 지점으로 전국 소재 파악”
“수시로 의뢰인에게 상황보고”

세일신용정보(주)

전문상담 010-8617-7899